

성장기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성인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간의 폭력 관찰 경험과 자신에 대한 폭력 행동 경험을 중심으로 -

안 귀 여 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기 가정 내에서 경험한 부모간의 폭력 '관찰 경험'과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 '행동 경험'이 성인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 두 종류의 경험 중 어떤 것이 심리적 부적응과 더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220명이었으며 이들 중 어머니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사람은 60.3%였고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사람은 53.2%에 이르렀다. 한편 성장기에 부모간의 폭력 행동을 관찰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전체의 28.8%였다. 성장기 가정 내 폭력과 성인기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받은 폭력 행동은 심리적 적응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행동의 경우 외상 증상과 특성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상호간의 폭력 행동 관찰 경험은 외상 증상, 충동성, 특성 불안,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 경험과 부모간의 폭력 행동의 관찰 경험이 초기 성인기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장기 폭력 경험이 성인기 적응 중 충동성, 특성불안, 외상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세 가지 폭력 경험 중에서 부부폭력 목격 경험만이 유의하게 이들 적응 변인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정 내 폭력, 폭력경험, 폭력관찰, 초기 성인기 심리적 적응

* 교신저자 :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읍 산 6-2
Tel : 031) 280-3484, E-mail : agyr7@kangnam.ac.kr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욕구를 해결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게 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을 내포하는데, 갈등이란 두 개 이상의 대립하는 충동이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대인간의 갈등은 많은 경우에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되지만 때로는 갈등의 해결에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정 내 폭력의 문제는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문제화되지 않다가 최근에 표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심재근, 1984). 국내에서 가정 내 폭력 행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고 현재까지 일부 학자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가정 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김재엽,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그러나 체계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이라고 함은 가족 구성원간의 폭력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 폭력 행위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일으키는 행동을 말하며, 예를 들어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밀거나 움켜잡는 행동을 하거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구타하거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녹초가 되게 때리거나’, ‘칼, 흉기로 생명 위협하거나’, ‘칼 흉기를 사용하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폭력 행동은 대체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폭력행동은 남편이 아

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연로한 부모에게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핵가족화 된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부간의 폭력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폭력행동이다.

가정 내에서 성장기에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폭력은 크게 폭력관찰(observed violence)과 폭력경험(experienced violence)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폭력 관찰’은 부모가 서로 때리면서 싸우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말하고 ‘폭력 경험’은 부모로부터 맞아본 경험을 말한다. 즉 성장기에 경험하는 가정 폭력의 대표적인 두 가지 중 하나인 부부간의 폭력은 ‘폭력 관찰’에 속하며 다른 한가지는 부모로부터 직접 받은 폭력으로 이는 ‘폭력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배우자 학대를 목격한 아이들은 그들이 경험한 지나친 자극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외상 후 증상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는다는 것이 이런 아이들을 관찰한 임상가들의 일반적인 결론이다(Silvern and Kaersvang, 1989). 이런 연구 결과에 의거하면,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성인기의 정서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Davis and Carlson, 1987). 현재의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가정 폭력 노출 경험과 아내 학대의 관련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아내를 학대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그들의 부모에게서 폭력을 관찰한 사람이 많다(Hotaling and Sugaman, 1986; Rosenbaum and O'Leary,

1981; Straus, Gelles, Steinmetz, 1980; Ulbrich and Huber, 1981). Louise Silvern 와 그녀의 동료들은 성장기 부모의 배우자 폭력이 성인 초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Silvern, Karyl, Walde, Hodges, Starek, Heidt, & Min, 1995). 이 연구에 의하면 550명의 참가자중 37%가 어떤 형태로든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들이 보고한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동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밀거나, 벽으로 때밀거나, 때리는 것이었다.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심각한 외상 증상이나 우울 증세를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한편 Pagelow(1984)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구타를 관찰한 남자는 후에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아내를 구타하는율이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폭력 노출 경험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율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의 영향이 남성에게는 존재하였으나 여성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Ulbrich와 Huber(1981)는 910명의 남자와 1092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성장기 부부폭력 노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부폭력이 여성의 역할 태도와 여성에 대한 폭력 사용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들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여성의 역할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 사용의 태도에는 영향을 미쳐 남성들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관찰했을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쉽게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성의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관찰한 경우 여성에 대

한 폭력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아버지 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을 관찰한 여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옥(1985, 1987)은 부모들 간의 폭력 노출은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 폭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정옥과 장덕희(1999)도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커서 역시 폭력적이 된다고 하였다. Rosenberg와 Rossman(1990)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배우자 학대를 경험하고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소녀들은 자신들이 현재 경험하는 갈등과 폭력 수준에 관계없이 높은 공격성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Christopoulos등(1987)은 40명의 학대받는 여성들과 아이들, 40명의 일반 가정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의 적응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학대받는 여성의 아들이나 딸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소년들은 과잉 공격성을 지니지는 않았고, 소녀들은 희생자같이 행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친의 갈등이나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폭력의 세대 간 연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Straus, Gelles와 Steinmetz(1980)는 10대였을 때 구타당한 경험이 많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그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Campbell(1995)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공격을 받은 여성은 그들의 자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출생 가족의 학대 경험은 부부간이나 형제간의 학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학대에

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성장기에 자신들이 분노와 폭력의 대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그들의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어 폭력의 세대간의 연속성을 지지하고 있다(Kempe, Silverman, Steele, Droegemueller, & Silver, 1962, Kalmuss, 1984).

이제까지의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간혹 가정 폭력이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이연복, 2000, 2001), 성장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과 부부간의 폭력이 성인기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폭력 관찰과 폭력 경험의 차별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Kalmuss(1984)의 경우, 성장기에 부모에게 맞았을 때 보다 부모의 폭력을 관찰한 사람들이 성장한 후에 결혼관계에서 자신들의 부부관계에서 폭력행동이 더 심하며, 폭력경험과 폭력 관찰, 두 가지의 공격성에 다 노출될 때는 부부관계에서 폭력이 극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폭력 노출은 특정 성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끼쳐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구타를 관찰했을 때 아들, 딸 모두 폭력의 가해자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청소년기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재

미있는 결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학대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보다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박경규(1994)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폭력 경험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찰한 경험이 성장 후 결혼 관계에서 아내에 대한 신체적, 상징적, 그리고 성적 폭력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기의 가정 폭력 경험이 폭력에 대한 노출과 경험이 이후의 적응에 차별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인기에 폭력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다(이연복, 2001). 그러나 한편, 신성자(2001)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폭력 경험이 성장 후에 아내구타 등의 성적 폭력 가능성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연구들의 결과와는 반대로 성장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신체적 폭력 행사의 관찰 경험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 서경현(2002, 2003, 2004)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보았는데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유의한 예언 변인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 경험과 부모로부터 가혹한 체벌을 당한 경험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 노출과 폭력 경험 모두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불안과 우울, 충동성, 자존감등이었다(Malamuth, Sockloskie, Koss, & Tanaka, 1991). 한편 또한 분노 표출이 성장기 폭력 경험과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기도 했다(박중효& Essex, 2002; Felix & McMahon, 2006). 다른 한편으로 가정 폭력 경험과 외상 후 증후군도 관련지어 연구된 경우가 많았다(Silvern, Karyl, Walde, Hodges, Starek, Heidt, & Min, 1995). 마지막으로 폭력의 피해 경험과 자존감의 관련성도 많이 연구된바 있다(O'Keefe, 1997; Jezl, Molider, Wright, 1996).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 까지도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것 같다. 즉 심리적 영역의 어떤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성장기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성인기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폭력노출' 경험과 '폭력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경험의 차별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들 경험이 초기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며, 폭력 관찰과 폭력 경험 중 어떤 것이 심리적 적응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울 소재 1개 대학과 경기 소재 2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로 심리학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25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나 반응이 타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질문지를 완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사람은 전체 220명이었고 이 중 남자는 78(35.5%)명이었고, 여자는 142명(64.5%)이었다.

절차

본 연구는 사전에 잘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이 가진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이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에 관한 것이라고만 설명하였고 성장기 가정 폭력경험에 대한 질문은 질문지의 맨 뒤쪽에 배치하였다. 연구 질문지는 학기 중에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각자 질문지를 완성한 후 함께 나누어준 봉투에 봉한 상태로 반납하도록 조치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을 실시자가 잘 설명하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측정 도구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CTS-The Conflict Tactics Scales(Straus, 1979)는 광범위하게 영향력있고 유용한 갈등해결에 대

한 측정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경현(2001)에 의해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책략이 포함되는 8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각기 다른 CTS에 답변하였다. 즉 성장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반응은 5점 척도로 채점되었다. 예를 들어 1-없다, 2-한, 두 번, 3-여러 번, 4-자주 5-매우 자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해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동에 관한 경험들을 물어보았다. 부모 간에 발생한 폭력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행동을 따로 CTS의 갈등 해결 방법 중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CTS갈등해결 책략 중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은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물건으로 치기, 발로 차기, 떠밀기, 흠씬 패주기, 목조르기, 흉기 사용하기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8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어머니의 폭력행동이 .81, 아버지의 폭력행동이 .84, 부부간의 폭력 목격이 .86이었다.

우울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자기가 평가하는 척도이다(박중훈, 1994). 이 척도는 Zung(1965)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준화 한 것으로 의기소침, 주의력 및 집중력, 사고력의 저하, 운동 정신 기능의 장애, 식욕 및 성욕 감소, 울음, 심하게는 허무망상 및 주관적 자살 의도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광범위하게 포

함하고 있다.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1: 아니다, 2: 때로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역 코딩을 하지 않고 총점을 계산한다. 이 척도들 간의 상호 상관은 $r = .78$ 이다(김정희, 1987).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박병탁, 이종범, 이종훈, 정성덕, 1990; 이종범, 이종훈; 1985).

충동성

Barratt Impulsiveness Scale(BIS, Barratt, 1959)의 11편을 이현수(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된다. 이 검사는 세 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계획 충동(NP), 운동 충동성(M) 및 인지 충동성(C)이 있다. 각 하위척도는 12문항, 10문항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불안

피험자의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70)의 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개의 문항중 특성 불안을 재는 20개의 문항만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나는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밀어 닦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마음이 놓인다,'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문항은 역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 였다.

자아 존중감

피험자의 자아 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은여가 번안한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는 자아 존중감과 관련된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노은여(1997)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외상 증후 체크 리스트-TSC(Traumatic Symptom Checklist)

외상적인 경험 후에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측정하는 도구인 외상 증후 체크리스트 TSC(Traumatic Symptom Checklist)-40을 사용하였다. TSC-40은 아동기나 성인기의 외상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성인용 검사이다. TSC-40은 40개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불안, 우울, 해리, 성적 학대 외상 지수(Sexual Abuse Trauma Index-SATI), 성적인 문제들, 수면 장애이다. 각각의 증상들은 지난 두 달간 발생한 빈도에 따라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만들어져 있다. 0점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이고 3점은 ‘자주 그렇다’이다.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고 채점하는데 5-10분이 소요된다. TSC-40를 사용한 연구들(Briere & Runtz, 1989)은 이 도구가 상당히 신뢰로운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위 척도의 알파는 보통 .66에서 .77에 이르고 전체 척도의 알파는 .89에서 .91정도이다(Briere & Runtz, 1989).

결 과

인구학적 정보들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전체 220명이었고 이중 남자는 78(35.5%)명이었고, 여자는 142(64.5%)이었다. 연령은 18-19세가 47.7%이고 20- 21세가 31.8%였으며 22- 23세가 12.3%였고 23세 이상이 나머지 범주에 속하였다. 27세 이상의 피험자는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험자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5.1%이고 100-200이 26.5%이며 200-300이 26.5%였고 200-250이 19.9%였고 300만원 이상이 44.4%였다.

성장기 가정 내 폭력 경험

전체 응답자 220명 중 성장기에 폭력 경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CTS척도에 대해 1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폭력경험을 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2,3,4,5에 응답한 사람들은 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어머니의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3명으로 전체의 60.5%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 142명중 85명이 어머니의 폭력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이는 전체 여성의 59.9%에 이른다. 남성의 경우 어머니의 폭력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전체 78명중 48명으로 전체의 61.5%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220명 중 성장기에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117명으로 전체의 53.2%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 142

명중 63명이 아버지의 폭력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이는 전체 여성의 44.4%에 이른다. 남성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전체 78명 중 54명으로 남성 전체의 68.8%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63명으로 전체의 28.6%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전체 78명중 26(남자

내에서 33.3%)명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전체 142명중 37(26.1%)명이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표 1 참조).

한편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의 내용을 살펴 보면(표 2 참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폭력 행동은 어머니의 경우 물건으로 맞았다가 3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물건을 집어

표 1. 가정폭력 경험 유무(괄호안은 %)

가정폭력 노출 경험		성 별		전체
		남	여	
어머니의 폭력적 행동	유	48(61.5)	85(60.0)	133(60.5)
	무	30(38.5)	57(49.0)	87(39.5)
	전체	78(100.0)	142(100.0)	220(100.0)
아버지의 폭력적 행동	유	54(69.0)	63(44.4)	117(53.2)
	무	24(31.0)	79(55.6)	103(46.8)
	전체	78(100.0)	142(100.0)	220(100.0)
부모간의 폭력적 행동	유	26(33.3)	37(26.0)	63(28.6)
	무	52(66.7)	106(74.0)	157(71.4)
	전체	78(100.0)	142(100.0)	220(100.0)

표 2. 성장기 가정 내 폭력 경험 중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 행동(괄호안은 %)

	어머니의 폭력행동		아버지의 폭력행동	
	경험 있다	없다	경험 있다	없다
1. 부모님이 나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43(19.5)	177(80.5)	38(17.3)	182(82.7)
2. 세계 밀침을 당했다.	41(18.6)	179(81.4)	37(16.8)	183(83.2)
3.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다.	40(18.2)	180(81.8)	55(25.0)	165(75.0)
4.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았다.	21(9.5)	199(90.5)	31(14.1)	189(85.9)
5. 물건(책, 몽둥이, 골프채)등으로 맞았다.	70(31.8)	150(68.2)	53(24.1)	167(75.9)
6. 사정없이 마구 맞았다.	31(14.1)	189(85.9)	23(10.5)	197(89.5)
7. 목졸림을 당했다.	1(0.5)	219(99.5)	2(0.9)	218(99.1)
8. 흉기로 위협을 받거나 다쳤다.	1(0.5)	219(99.5)	1(0.5)	219(99.5)

던졌다가 19.5%였고, 다음으로 높은 것은 세계 밀침을 당했다가 18.6%였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은 사람의 비율도 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와 달리 가장 높은 폭력 행동은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다고 25%였으며 물건 등으로 맞았다가 24.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행동이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맞았다고 보고한 사람은 어머니로부터는 9.5%이고 아버지로부터는 14.1%에 달했다. 물건으로 맞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사람이 아버지의 경우 보다 많았다. 사정없이 마구 맞았다고 대답한 사람도 양친 모두 10%가 넘었다.

한편 성장기 가정 내에서 부모간의 폭력 행동을 목격한 경험을 내용별로 살펴보면(표 3 참조), 세계 밀치는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5.5%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동을 목격한 경우는 12.7%에 달했다.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4.1%였으며 물건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1.8%였다. 전체적으로 28.6%의 사람들이 부모 간의 폭력

적인 행동을 목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과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

다음으로 이러한 성장기의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4 참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중 심리적 적응을 더 많은 관련을 보이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한 폭력 행동이 아니라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었다. 성장기에 부모가 서로 폭력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외상 후 증후들과 유의한 상관관이 있었으며, 성격 특성에 있어서는 충동성 특성불안, 자아 존중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 행동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받은 폭력적 행동은 적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적 행동이 외상 후 증후들과 특성불안과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장기 가정 내 폭력 경험중 부모간의 폭력 행동 목격 경험(괄호안은 %)

	부모간의 폭력행동	
	목격한 적이 있다	없다
1. 물건을 집어 던졌다.	27(12.3)	193(87.7)
2. 세계 밀쳤다.	12(5.5)	208(94.5)
3.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다.	28(12.7)	192(87.3)
4.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9(4.1)	211(95.9)
5. 물건(책, 몽둥이, 골프채)등으로 때렸다.	4(1.8)	216(98.2)
6.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0.5)	219(99.5)
7. 목졸림을 당했다.	0(0)	220(100)
8. 흉기로 위협을 받거나 다쳤다.	0(0)	220(100)

표 4.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과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어머니로부터 받은 폭력 행동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 행동			부부간의 폭력 목격 경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TSC	.135	.111	.115	.279*	.097	.172*	.316**	.524**	.403**
충동성	-.103	-.087	-.089	.046	.003	.027	.338**	.297**	.315**
우울감	-.020	.043	.040	.202	.028	.083	.282**	-.080	.084
특성불안	.234*	.048	.108	.295**	.106	.176**	.457**	.378**	.401**
자아존중감	-.119	-.009	-.044	-.185	-.018	-.092	-.266*	-.027	-.150*

* $p < .05$ ** $p < .01$ *** $p < .001$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성장기에 경험할 수 있는 가족 내 폭력 경험 중 어느 것이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한가를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심리적 적응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성장기 세 가지 폭력 행동의 경험을 독립 변수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종속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독립 변수를 살펴보면 충동성의 경우 세 가지 독립변인 중 부부폭력 목격 경험뿐이다. 한편

우울감의 경우는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특성불안의 경우에도 유의한 변인이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었으며 외상 후 증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이전 상관분석에서와 유사하게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독립변인은 부부간의 폭력 행동 목격 경험이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t = -1.951$ 로 유의도가 .052로 나타나서 경계선적인 유의도를 보였다.

이 자료를 성별에 따라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는 부부폭력 목격 경험만이 특성불안과 외상후 증상을 설명하는

표 5.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폭력 경험의 영향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행동		어머니로부터의 폭력 행동		부부 폭력 목격 경험		R ²	Durbin-Watson
	β	t	β	t	β	t		
충동성	-.034	-.463	-.077	-1.090	.325	4.816***	.108***	1.962
우울	.057	.729	.017	.222	.068	.957	.011	2.006
특성불안	.027	.379	.094	1.383	.392	6.028***	.172***	1.933
자아존중감	-.043	-.558	-.025	-.344	-.138	-1.951	.026	2.006
TSC	.017	.235	.103	1.557	.397	6.118***	.175***	1.81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남학생의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폭력 경험의 영향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아버지로 부터의 폭력 행동		어머니로부터의 폭력 행동		부부 폭력 목격 경험		R ²	Durbin- Watson
	β	t	β	t	β	t		
충동성	-.274	-.734	-.323	-.781	.323	3.120*	.134	1.327
우울	.242	.908	-.0144	-.490	.138	1.868	.090	2.067
특성불안	.257	.509	1.090	1.957	.527	3.783**	.260***	1.963
자아존중감	-.133	-.444	-.274	-.828	-.158	-1.907	.086	2.220
TSC	1.161	1.182	.851	.783	.558	2.052*	.133*	1.564

*p < .05 **p < .01 ***p < .001

표 7. 여학생의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폭력 경험의 영향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아버지로 부터의 폭력 행동		어머니로부터의 폭력 행동		부부 폭력 목격 경험		R ²	Durbin- Watson
	β	t	β	t	β	t		
충동성	-.365	.142	-.254	-.981	.375	3.591**	.096*	2.000
우울	.486	.022	.159	.724	.824	.936	.108	1.956
특성불안	.216	.510	.127	.300	.797	4.665**	.147**	1.958
자아존중감	-.316	-.134	-.604	-.025	-.282	-.295	.001	1.844
TSC	-.245	-.395	.980	1.574	1.818	7.258**	.288**	1.866

*p < .05 **p < .01 ***p < .001

데 유의하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충동성, 특성불안, 외상후 증상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였다(표 6, 7 참조).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가 자신에게 행하는 폭력 행동이 성인 초기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폭력 경험으로는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 행동을 선정하였고, 폭력 관찰로는 부모간의 폭력 행동 관찰 경험을 선정하여 이들 경험과 성격 특성 및 태도, 외상 증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 중 어머니의 폭력 행동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60.5%였으며 아버지의 폭력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53.2%였다. 한편 어머니의 폭력 행동에 대한 보고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아버지의 폭력 행동에 대한 보고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경우 자녀를 성별에 따라 달리 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모 상호간의 폭력적 행동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전체의 30%정도였는데, 이전의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난 부모의 부부간 폭력 목격 경험의 정도와 일치한다(안귀여루, 2001, 2002).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며, 부모의 폭력 행동의 목격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나 이후의 데이트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방면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Bernard & Bernard(1983)는 데이트 폭력을 보인 남성의 73%와 여성의 50%가 자신의 원가족 내에서 학대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한다. Sigelman, Berry & Wiles(1984)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간의 폭력과 데이트 폭력행동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을 보고하였다. Riggs(1986)도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공격행동과 남자의 데이트 폭력 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과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에 대한 연구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장기의 폭력 행동에 대한 경험과 성인 초기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행동 경험보다는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관찰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적 행동의 경우, 여학생은 적응과 상관성이 없었으며 남학생은 외상 증상과 특성 불안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이와 동시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자들이 부모의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기의 세 가지 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성인 초기의 적응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충동성의 경우 부부폭력 목격 경험만이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특성 불안과 외상 증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의 폭력 행동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성인기 적응과 관련된 변인 중 어떤 것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기에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 행동에 비해 부모간에 발생한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자신에게 가해진 부모의 폭력행동이 매우 심한 학대의 수준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역시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당한 폭력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해 주는 바는 성장기에 가정 내에서 부모가 서로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장기 자녀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초기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

는 것은 부모로부터 직접 당한 폭력의 경험이 아니라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폭력 관찰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전에 가정 폭력 경험과 성인기 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결과들이 일관적이지는 않다. Jaffe등(1986)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한 사람이 부모간의 폭력 행동을 목격한 사람과 비슷한 행동적인, 사회적 부적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데이트 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으나(Riggs, O'leary & Breslin 1990; Foo & Margolin, 1995), 다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Comins, 1984; 서경현, 이영자, 2001). 한편 이후의 연구에서도 부모 간에 일어난 폭력의 목격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과 데이트 폭력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서경현, 2001;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따라서 앞으로도 폭력 경험과 목격 경험의 차별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설은 종속변인에 대해 독립변인이 설명하는 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즉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성장기의 가정 폭력 경험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 관련 경험만으로 이후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로 연구자가 선정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 즉, 우울이나 불안, 자존감, 외상 증상 등을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이 설명해 주는 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충동성과 불안 외상 증

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 폭력 행동이 적응을 설명하는 데 거의 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족 내에서 부부간의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성장기 자녀에게 다른 종류의 폭력 경험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이다. 많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 여성들이 자신의 진로 결정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원인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한다(이 연복, 2001). 즉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특히 부부간의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참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참고 사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경현(2004)의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 경험 중 폭력 경험과 관찰 모두가 초기 성인기의 데이트 폭력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폭력 목격의 유의한 효과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트 폭력행동은 자신이 받은 폭력은 되돌려주는 행위라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은 폭력에 대한 노출의 수동적인 결과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가정 폭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폭력 경험과 다양한 심리적 적응 변인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이라는 점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 가정 내 폭력 행동에 대한 시각이나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배가 추후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

동적인 심리적 변인 뿐 아니라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데이트 폭력이나 대인 관계 갈등 등을 종속변인으로 포함하는 것이 세 가지 폭력 행동의 차별적 영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폭력행동의 정도와 지속기간에 대한 측정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차별적 영향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런 점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가정 폭력 노출의 영향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서 폭력 경험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중재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폭력의 발생에 기여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가정 폭력의 발생양상에 따른 문제들을 예언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재엽 (1998). 가정 폭력 실태와 사회 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41-74.
- 김재엽 (1998). 가정 폭력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97-116 .
- 김정옥 ((1987)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옥, 장덕희 (1999). 가정 폭력이 청소년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53-186.
- 김정택 (1978). 특성 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은여 (1997). 결혼 생활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의 변동이 기혼 남녀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규 (1994) 기혼 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 교우 관계 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병탁, 이종범, 이중훈, 정성덕 (1990). 양로원 재원 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 영남의대 학술지, 7, 79-87.
- 박중훈 (1994). 급성 및 만성 정신 분열증 환자의 우울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 (2003). 음주동기, 음주문제 및 음주가 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61-78.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 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77-96.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신성자 (2001). 부부의 자녀 폭력 및 부부폭력

- 과 자녀 양육 수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27-174.
- 심재근 (1984). 가정내의 폭력과 공격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귀여루 (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79-695.
-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이연복 (2000). 성장기 가정 폭력의 목격 경험이 가정 폭력의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연복 (2001). 대전. 충청지역 여성들의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이 가정 폭력의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사회복지연구*, 6, 180-211.
- 이현수 (1992). *총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드스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2). 가정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편의 아내 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
- Barnett, O. W Cindy L. Miller-Perrin C. L (eds) (1997).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SAGE.
- Bernard, M. L& Bernard, J. L (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1983.
- Briere, J., & Runtz, M. (1989).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TSC-33): Early data on a new sca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151-163.
- Campbell, J. C. (1995). Prediction of homicide of and by battered women. In J. C. Campbell(Eds.), *Assessing dangerousness: Violence by sexual offenders, batterers, and child abusers*. 96-113. Thousand Oaks, CA: Sage.
- Christopoulous, C., Cohen, D. A., Shaw, D. S., Joyce, S., Sullivan-Hanson,J., Kraft, S.P., & Emery, R. E. (1987). Children of abused women: I. Adjustment at time of shelter resid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611-619.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Davis, L. V., and Carlson, B. (1987). Observation of souse abuse: What happens to the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 278-291.
- Edlesin, J. L. (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pp.35-42.
- Foo, I.,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Gelles, R. J. (1976). Abused wives: Who do they sla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659-668.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on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Hotaling, G. T. and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 Violence Victimology*, 1, 101-124.
- Jaffe, P., Wolfe, D., Wilson, S. and Zak, L. (1986). Similarities in behavioral and social maladjustment among child victims and witness to family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142-146.
- Jezl, D. R., Molider, C. E. & Wright, T. L. (1996).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in high school dating relationship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3(1), 69-87.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46, 11-19.
- Kempe, R.,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107-112.
- Malamuth, N. M., Sockloskie, R. J., Koss, M. P., & Tanaka, J. S. (1991). Characteristics of aggressors against women: Testing a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70-681.
- Paeglow, M.D. (1984). *Family Violence*. New York: Praeger.
- Riggs, D. S, &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Rosenbaum, A., and O'Leary, K. D. (1981). Children: The unintended victims of marit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692-69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 & Rossman, B. B. R. (1990). The child witness to marital violence. In R. T. Ammerman & M. Hersen(Eds.), *Treatment of Family Violence*. New York: Wiley.
- Sigelman, C., Berry, C., & Wiles, K.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ilvern, L., and Kaersvang, L. (1989). The traumatized children of violent marriages. *Child Welfare*, 68: 421-436.
- Silvern, L., Karyl, J., Waelde, L., Hodges, W. F., Starek, J. , Heidt, E. & Min, K. (1995).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al Partner Abuse: Relationship to Depression, Trauma Symptoms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2), 177-202.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c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75-88.
- Straus, M. A. (1990). Injury and Frequency of Assault and the "Representative Sample Fallacy" *Measuring Wife Beating and Child Abus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traus, M. A., Gelles, R. J., and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Anchor Books/Doubleday,

- Garden City, NY.
- Ulbrich, P., and Huber, J. (1981). Observing parental violence: Distribution and effect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23-631.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 508-515.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08. 07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1. 08

**Effects of Family Violence during Childhood
on Early Adulthood Adaptation.
- Focusing on ‘experienced violence’ and ‘observed violence’ -**

Gwi-Yeo-Roo Ahn

Kangnam University

Kyung-Hyun Suh

Samyook University

It is the aim of present paper to examine the effects of experienced violence and observed violence in original family on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two types of aggression in family were examined. Participants were 220 college students. Among them, those who have experienced violence from mother are 60.3%. And 52.3% reported violence from father. Those who have observed their parents violent behavior are 28.8%. These childhood ‘experienced violence’ and ‘observed viole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early adulthood adaptation. But its effect is dependent on participant's sex. Experienced violence from mother is positively related to confidence in scholastic achievement in female. Experienced violence from father is positively related to traumatic symptoms and trait anxiety in male. On the other hand, observed violence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raumatic symptoms, impulsivity, depression, self-esteem and trait anxiety. Most important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observed violence explains early adulthood adaptation more significantly than experienced violence. The discussion addresse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for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experienced violence, observed violence, adaptation